

불법 포장마차 '범죄 온상'



대형 포장마차들이 불을 환하게 밝힌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포장마차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관할 구청은 마땅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위권일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등 유흥가 인근에 우후죽순처럼 늘어서 있는 일부 불법 '기업형 포장마차'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술에 취한 손님들이 난동을 부리고 심지어는 조직폭력배까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불법 포장마차의 명단을 작성하고 관할 구청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구청 측은 강제 철거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상무지구에 위치한 무허가 포장마차 명단을 작성했다. 이곳 포장마차에서 폭력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현황을 파악해본 것이다.

경찰이 작성한 명단에 포함된 포장마차는 22곳. 모두 사건이 발생해 지구대원들이 한 번 이상 출동했던 곳이다. 포장마차마다 2~3회 출동한 것은 기본이고, 4~5회 출동한 곳도 많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

명이다. 명단에 포함된 H포장마차에서는 지난해 5월 전과 19범인 조직폭력배 김모(28·무등산과 행동대원)씨 등 4명이 손님 이모(여·25)씨 등 3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 포장마차 상당수는 소위 '기업형 포장마차'. 일반 포장마차보다 2~3배 넓으며, 평균 매상이 많을 때는 하루 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주들은 땅 소유주에게 약간의 임대료를 주고 부지를 빌린 뒤, 대부분 구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서구청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무허가 포장마차의 경우 도로법(제40조 등)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상인들이 과태료를 납부한 뒤 영업을 재개하

기 때문에 이렇다 할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도로법은 1차 적발시 15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업주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식품위생법(제77조 등)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판매 및 접객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주들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을 납부한 뒤 풀려난다.

다른 구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북구청의 경우 지난해 불법 노점상 87곳을 적발했는데, 이중 52곳이 포장마차였다. 구청은 관내에 590여 개의 무허가 포장마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용봉지구와 전남대 상대 인근에는 '기업형 포장마차'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구청도 지난해 21곳의 불법 포장마차를 단속했으며, 광주공원 인근에 3~4개의 '기업형 포장마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법 포장마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제 철거하는 방법밖에는 없지만, 업주들이 생계 문제 등을 들어 강력히 반발할 수 있어 실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취객들 난동·폭력사건 빈발 일부선 조직폭력배까지 개입 서민 생계 달려 단속 어려움

고법 부장판사 석궁 '피습'

교수 복직소송 패소 불만 범행...생명 지장 없어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로부터 석궁에 맞아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55)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송파구 자택 앞에서 김모씨로부터 석궁에 배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다.

대구출신인 박 부장판사는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 부장판사의 자택을 미리 찾아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날 퇴근해 차에서 내

리는 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쏘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1991년 서울 모 사립대에 조교수로 임용됐다가 동료교수 비방, 연구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 1996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뒤 법원에 복직을 요구하는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지난 12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의사가 의료용 가위로 환자 보호자 찔러

약물중독 여부 수사

광주 광산경찰은 15일 의료용 가위로 환자 보호자를 찌르는 등 폭력을 휘두른 모 병원 원장 A(42)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낮 12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광산구 모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인 B씨가 "딸의 얼굴에 반점이 나는 원인이 뭐냐"며 묻자 갑자기 의료용 가위로 B씨의 어깨를 찌른

협이다.

A씨는 또 B씨 옆에 있던 C씨의 누나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약물 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A씨는 경찰조사에서 "피근과 스트레스가 겹쳐 순간적으로 가위만 들었을 뿐"이라며 폭행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승용차·운전학원차 충돌 6명 사상

어제 영암군 망호리

승용차와 운전학원 교습용 화물차가 충돌, 80대 노부부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5일 오전 9시50분께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 영암 상수도사업소 부근 도로에서 서울50라76××호 소나타 승용차(운전자 조모·62)와 95소85××호 운전학원 교습용 1t 트럭(운전자 박모·44)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조씨의 아버지(87)와 어머니(84), 아내

정모(58)씨가 숨졌고 화물차에 타고 있던 교습생 김모(19)씨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조씨는 노부부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길이었으며, S 운전학원 직원 박씨는 도로주행 연습 후 교습생을 태우고 영암에 있는 학원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영암=김현남기자 hnkim@

오늘 '反FTA' 서울 집회 광주·전남 1천여명 상경

경찰과 충돌 우려

광주·전남지역 농민회 등 FTA 저지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규모 상경 투쟁을 벌이기로 해 원전봉쇄에 나설 계획인 경찰과 충돌이 우려된다.

한미 FTA 반대 광주·전남운동본부에 따르면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6차 협상 반대집회 참석을 위해 광주·전남지역 17개 시·군에서 모두 1천여 명이 상경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15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산동 전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의도 없이 국민의 삶을 파탄 내는 한미FTA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집단 상경을 막는다 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개별 상경을 통해서라도 평화적인 범국민 집회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참석 강령의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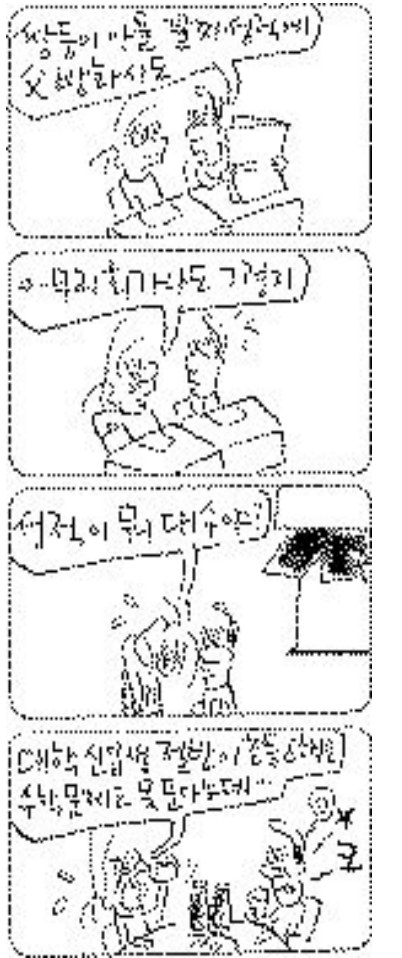
광주에서는 16일 오전 9시 전대 정문에서 농민·노동자 등 300여 명이 전세버스편으로 올라가며, 전남지역은 각 지역별로 상경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의 상경을 출발지에서 원천봉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서울집회가 민주노동당의 정당행사로 치러질 예정으로 있어 당원 자격으로 참석할 경우 이를 막을 명분이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특히 일부 농민회 등은 경찰이 집단 상경을 막을 경우 고속도로나 국도 점거농성을 벌이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과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029)



평생선도처럼 중성특성을 누리는 3.636 피피피! (한번만 400원 400원 400원) 수현선도시 피피피! 062-367-9000

40대 주부 히로병 상습 투약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5일 상습적으로 히로병을 구입해 투약한 박모(여·41)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쌍둥이 아들 '올가'·'아버지'도

○서울 마포경찰은 15일 쌍둥이 아들이 성적표에 '올가'를 받아오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아버지 A씨를 폭력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께 마포구 합정동 자신의 빌라에서 "아들들이 공부에 안 하고 컴퓨터만 한다"며 '지포' 라이터 휘발유를 거실에 뿌리고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한 혐의.

○중학교 3학년에서 올라가는 A씨의 쌍둥이 아들은 전 과목 '가'를 받아 전교생 576명 중 576등과 575등을 했는데, A씨는 "양이 하나만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

/연합뉴스

우리 가족 활력에너지 베콤씨

아침 저녁 하루 두번 **우리가족의 힘- 베콤씨**

베콤씨에 함유된 베타인과 비타민은 수증기배타민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베콤씨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11 11층 (02-380-1111) www.becom.co.kr